

때 이른 더위에 모기떼 극성... “도심 개체 관리 필요”

온난화 영향 산란 빨라져 각 자치구 방제에도 곳곳서 ‘잉양’ 광주시 병원매개체만 조사... “기후변화 따른 맞춤방역 필요”

때 이른 무더위에 모기떼까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각 자치구가 적극 방제에 나서고 있으나 산란일자가 앞당겨진 데다, 산란 시기, 확산, 활동 장소, 개체 등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방역 체계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22일 광주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보건연구소는 모기와 관련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 장소별 발생 현황, 방제 필요에 따른 모기 발생지수 등을 표기하는 ‘모기 예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예보에서 모기 발생단계는 최고 단계인 4단계(불쾌)에 도달했고, 모기 활동지수는 8.6을 기록했다.

이 단계의 행동수칙 및 방제법은 ▲ 실내에서 취침 시 반드시 모기장 사용하기 ▲ 출입문 주변에 가장용 살충제 비치 및 살포 ▲ 불가피한 야외 활동 후에는 바로 샤워하기 등이다. 또 ▲ 어린

이의 야외 야간활동은 자제 ▲ 어린 야간 활동 시기피해 사용 등도 권하고 있다. 특히 기관과 사회는 민원 발생지역에 적극적인 방제와 모기유충 및 성충 집중 방제, 장기간 상하수도 정비, 재활용 수거함 정비, 재활용 타이어 적치 방한 강구 등 가장 강한 방제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라고 표기돼 있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 보건소도 이른 봄에 출몰한 모기떼 활동에 대비해 지난달 초부터 하계방역에 돌입했다. 유충구제 작업은 이미 3월부터 시작했고, 모기떼 출몰이 활발해지자 매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관내 공원 및 골목길, 하수구 등에 연무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고여있는 웅덩이 없애기, 페타이어 구멍 뚫기 등을 통해 유충 서식지 제거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역 모기가 갖고 있는 병원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가운데 지난 19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관내 한 하천에서 모기 퇴치 방역을 하고 있다.

일본뇌염 모기의 밀도 조사나 중간숙주인 돼지족사 인근 등 타켓팅을 통해 모기 매개 감염병 위주로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온 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등 모기의 산란 시기와 개체 등에 변화가 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심 모기 현

황이나 출몰시기, 개체 수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맞춤방역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조사과는 “광주시는 기후 변화 대응에 주력해 병원체 매개 모기와 그 연관 장

소에 대해서만 밀도 조사를 실시해 현재 도심의 상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은 때 이른 모기떼 출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각 자치구의 이른 방제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52)씨는 “아파트 인근이 호수공원과 산으로 둘러싸여 모기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며 “더위 때문인지 올해는 더 빨리 모기떼가 출몰한 것 같은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의사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해주고 기후 변화에 따른 실용성 있는 맞춤 방역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도심 속 숲, 공원 등의 모기떼를 살펴봤을 때 예년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기온이 3월부터 오르다보니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일본뇌염 매개 숲모기 등 다양한 개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사의 목적성에 따라 장소와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 도심의 분포·밀도 등은 다른 각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건소와 대학교 등과 연계해 DMS 모기 채집 자동화계산 장비를 설치해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의 목적 설정·변경 등은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서울시와 같이 따로 도심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복기자

광주 동부경찰서 ‘용산동 시대’ 열리나

이전 예정지 소유자 2심 패소...대법원 상고 관건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예정 부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동구청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예정 부지의 위치 적절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데다, 소유자의 대법원 상고 가능 기한이 일주일여 남아 사업 본격

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2년 건축된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 유지

비가 예상되고,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경찰서를 (새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에서 2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토지매매협상 등 후속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은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07년 추진됐으며, 10년간 옛 광주시청 부지, 옛 광주여고 부지, 계림7구역·학동4구역 재개발 부지, 지

원중학교 폐교 부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동부용산동 산11번지 일원을 신축 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지만 토지매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소송이 시작,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 공사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경찰청에서 추진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축사업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다.

다만, 올해 초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의 설문조사에서 신축 청사의 위치와 관련 과반이 청사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오복기자

대학-업체 짜고 직업교육훈련금 2억 부정 수급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의혹을 받는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지원금 약 2억원

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습병행 훈련장려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된다.

경찰은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는 1곳이지만,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30여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해남=박필용기자

자녀 등원시키다 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엄마 ‘집유’

자녀를 등원시키다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혐오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흡)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36·여)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차로 어린이집 교사 B(3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기 위해 급경사의 내리막길에 정

차, 조수석에 앉은 자녀 쪽으로 갔다. 그러나 차량은 시동이 꺼지지 않았고 변속기어는 ‘드라이브(D)’로 된 상태였다. 차량은 뒤로 후진했고 놀란 A씨는 급하게 조수석 쪽에서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정지(P)가 아닌 중립(N)으로 바꿨고 차량은 계속 후진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고 A씨의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조수

석 문 뒤쪽에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도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당황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오복기자

“나 두고 먼저 가?”...연인 때린 30대 입건

자신을 두고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A(31)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의 자택에서 연인 B(33·여)씨의 얼굴을 치고 흉기로 위협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을 두고 혼자 귀가했다는 것에 분노,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흉기 위협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